

공동체 소식



연중 제17주일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 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매일미사 책 137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7/31(월):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8/01(화):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8/04 (금):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 8월 첫주간 신심미사 안내

- 예수성심신심 : 8/4(금) 오전 10:00, 미사 30분 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있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 8/5(토) 오전 10:00, 묵주기도와 함께 하는 미사

■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위원 임명 예고

- 일시 : 8/13(주일) 예정.

- 대상 : 총무 - 김대연 요셉, 재무 - 김병철 베네딕도, 선교 - 박태주 로마노, 구역 - 이영민 엘리사벳.

■ 8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8.12(토) 11:30부터.

■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37	219	151	19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차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조지연 마리아
차 주	김영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화년, 안현숙, 김진미
차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내익 베드로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7/23	57명	359달러	930달러
김정원, 이우석, 박태주, 정수한 (총4세대)			

연중 제17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7월 30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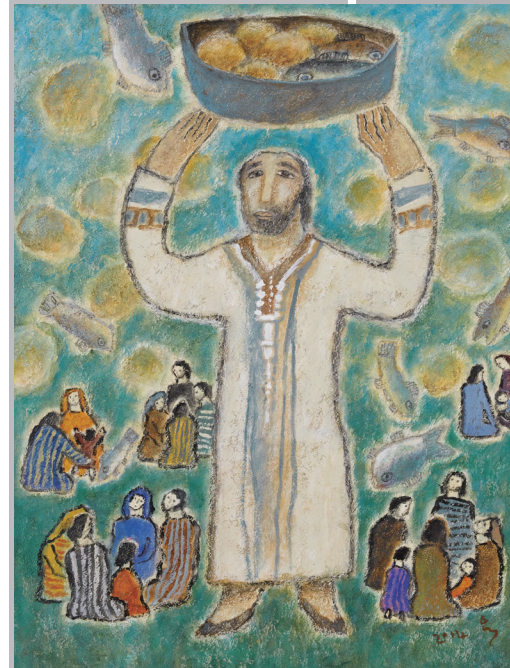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지혜의 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끄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진주와 보물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선물을 받도록 합시다.

그림 묵상

빵과 물고기의 기적

“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마태 14,19)

복음에서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의 기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확장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간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랑은 영적으로 궁핍한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음식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3,5-6ㄱ.7-12
<너는 분별력을 청하였다.>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뉘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중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웁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28-30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44-52<또는 13,44-46>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좋은 일 가려내는 지혜 청하자



솔로몬은 선천이었던 다윗의 규정에 따라 살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자신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하니 백성을 잘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청하지도 않으며, 원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을 가려내는 분별력, 곧 지혜를 달라고 청하는 솔로몬을 보시며 하느님께서도 대단히 흠족해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롭고 분별 있는 마음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상권의 이어지는 장면에서(1열왕 3,16-28), 우리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듣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판결해 달라고 하자, 솔로몬이 아이를 죽여서 둘이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를 자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하는 여인이 진짜 어머니고, 잘라서 나누자는 여인이 가짜였음을 밝힌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1열왕 4,9-14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었다고 전합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였던 세바의 여왕도 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었기에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성전을 그토록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솔로몬의 시기를 태평성대였다고 묘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1열왕 5,2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엇보다도 값진 하느님의 지혜를 간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옛 선조들의 삶을

비추어서 진정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 나라를 위해 투신하라고 권고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공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마태 13,51)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의 가르침은 하늘 나라 복음을 추구하는 우리가 꺼내어야 할 귀중한 옛것, 곧 옛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옛것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청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파라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스며들게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1열왕 3,1; 11,1) 거기다 말년에 가서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다가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 주변 임금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시도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뒤 예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해 약속된 땅이었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솔로몬마저 방심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실 것이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신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더 큰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로마 8,28)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당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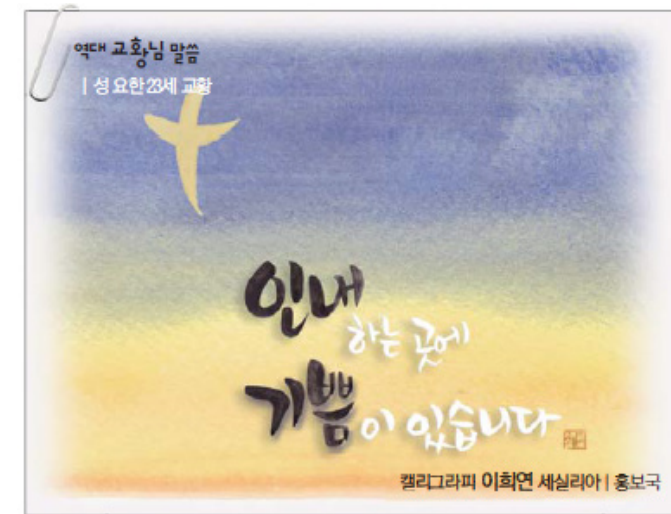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성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성호를 그으세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전례나 기도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나 각종 모임의 시작과 끝에 자주 십자성호를 그읍니다. 아, 식사 전후에도 꼭 그지요. ‘잘먹겠습니다’ 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일상의 여러 순간에 십자성호를 그는 까닭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그것이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성호는 비록 간단한 동작이지만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고대 중동 지방의 사형 도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이후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미 초세기부터 여러 형태의 십자 표시를 전례나 사적인 기도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마와 가슴, 어깨에 그는 전형적인 십자성호는 5세기경부터 나타났지만, 이것이 전례나 개인기도 등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3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이 동작은 중세 초기에 성삼 기도문과 합쳐지면서 더욱 일반화되었지요. 이마와 가슴, 양 어깨에 십자성호를 그는 이유는 이들 부위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마와 입술 및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하는 것을 ‘작은 십자성호’라 합니다. 작은 십자성호 역시 중세기 이전부

터 애용되었지만 전례 안에 들어온 것은 12세기이후부터입니다. 현재는 미사의 말씀 전례 중 복음 봉독 직전에 작은 십자성호를 그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설이 있으나, 대체로 ‘복음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표를 그리는 행위는 4~5세기부터 안수의 의미로 하기 시작했는데 축성, 축복, 사죄, 구마 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십자 표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짙막하고 명료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 표시를 통해 인간에게 빛과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흑과 백

내가 가진 것이거나 그 밭이거나
내가 가진 것이거나 진주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좋은 것이거나
악한 자이거나 의인이거나
그분에게는
둥글둥글
뭉실뭉실
대충대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마태 13,44)

